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미술학 석사 학위논문

개인과 사회시스템의 갈등구조에
대한 조형적 연구

2018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조소전공
김 지 용

국문초록

자본의 발달과 함께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도 함께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사회 관계망의 확장은 개인과 사회의 가치 충돌과 소외문제를 심화시킴으로서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하고 있다. 예컨대 전통 사회에서의 미덕인 공동체의식, 혹은 윤리의식이 이제는 버려야 될 가치로 인식 되고 있는 등, IT강국의 이면에는 명과 암이 교차하고 있다. 집단과 개인의 충돌은 그런 면에서 가치체계의 충돌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한국은 이미 고도의 자본주의적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국가이지만 동시에 그 시스템에 의해 집단과 집단, 개인과 사회의 상호이익이나 가치관에 따른 갈등구조도 더 증폭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도시 재개발 문제나, 원전문제 등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시스템과 시스템, 가치와 가치의 충돌에 의해 야기되어지는 것들이 많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회현상과 갈등의 고리들을 때로는 비유에 의해, 때로는 패러디에 의해 조형적으로 연구, 모색해 보려는 시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가치관이나 사회 제도권에서 발생하는 문제현상을 직접적으로 재현하거나 오브제에 담아 녹이고, 부풀리고, 자유자재로 형태변화 시키면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을 관찰하고 고정관념처럼 정해진 무의식 속 사회 관념들의 인식변화를 시도한다.

복잡하게 엉킨 사회적 문제들을 개인에게 일어나는 가치관의 문제와 연관짓다보면 그 갈등구조가 보다 명료해진다. 사회 시스템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현대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한국사회시스템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들, 즉 지역이나 세대 혹은 자본 중심의 새로운 계급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정부분 읽혀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문제나 병폐들을 공적 논리 속에 환기시키고 다중의 의견을 모아내어 해결하려는 접근과 시도는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해도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지는 개인의 이야기를 다층적 가치의식 속에서 조형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해답 혹은 의식의 전환을 얻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의 충돌을 조형적 관점에서 모두 들여다보는 것은 쉽지 않다. 현대사회를 이루고 있는 가치관들은 너무도 복잡다양하기 때문이며 그 혼란과 혼돈을 근간으로 형상화시키는 조형작업 또한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그 복잡성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다. 두더지게임처럼 한쪽을 처리하면 다른 쪽이 튀어 올라오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조형예술의 관점에서 그 현상들을 조망하고 연구의 기초로 삼으려 하는 것은 그것이 포괄적, 은유적이기는 하지만 색다른 사회적 상상력의 재료이자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사회적 갈등국면을 작품연구의 주제로 삼을 때에는 많은 제약과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현실의 문제를 이미지화하거나 시각적으로 왜곡, 혹은 변용함으로서 표현의 확장을 꾀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따라서 개인과 집단, 계층과 계층, 이념과 이념간의 갈등구조에 대해 논리적 분석이나 해답보다는 관찰자적 관점에서 조형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이다.

주요어 : 사회시스템, 사회구성원, 개인, 집단, 이념, 갈등, 조형

학 번 : 2014-20760

목 차

국문초록

목 차

들어가며

I. 개인과 집단의 갈등구조 들여다보기

1) 땅과 집 개인과 시스템

2) 전통과 혁신의 부조화

3) 사회 구성원으로써 발생하는 가치관 충돌

II. 특수하고 지역적인 사회 문화와 가치관의 조형적 접근

마 치 며

들어가며

일찍이 분석적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그의 명저 <소유냐 존재냐>¹⁾에서 장차 고도자본주의가 진행되면서 삶의 형태는 소유적 삶과 존재적 삶의 형태로 나뉘어 대립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바 있다. 소유적 양식은 돈, 명성, 사회적 신분, 지식 등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반면 존재적 삶은 자유이성, 그리고 독자성을 지향하는 삶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30년 후 그의 예언대로 저명한 신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하비콕스는 그의 <세속도시>에서 현대 문명의 급속한 세속화와 전통가치의 몰락에 의해 소유적 삶이 지배하는 삶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정보와 기술의 시대에 발생할 새로운 빈곤계층과 그 갈등구조에 대해서는 종교적, 예술적 대응까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사회복지학자 엘렌웨이의 다음과 같은 경고를 예로 든다

도시화, 자동화 및 인종차별 폐지등과 결부된 인구 증가가 우리의 상상을 훨씬 앞질러 나가기 때문에, 예전에 낙오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들을 보완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제도를 발전시키기는커녕, 우리는 엄청나게 위험하고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신화로 무장된 새로운 현실에 직면한다.²⁾

그는 현대인을 “입체 교차로에 서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이 불행한 기술도시인은 고속도로 입체 교차로의 노마드처럼 공항, 백화점, 관공서 등으로 설새 없이 이동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였다.

본 논문은 특히 이러한 자본의 팽창과 함께 <집>의 의미가 어떻게 변모 되었으며 따스하고 포근한 가정과 집이 어떻게 새로운 계층의식과 갈등구조를 야기했는가 하는 점과 함께 한국의 오늘을 둘러싼 복잡하고 숨 가쁜

1) 에리히프롬, 『소유냐 존재냐』, 차경아 옮김, 까치글방, 1996

2) 하비콕스, 『세속도시』, 이상률 옮김, 2010, p103

상황들, 즉 전쟁의 상시적 위협과 아이티강국의 음영을 조형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들여다보려하였다.

I. 개인과 집단의 갈등구조 들여다보기

설 새 없이 이동해야 되는 도시 노마드 인류는 때때로 자의에 반하여 주거를 옮겨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새로운 도시 단지의 건설에 의해 불가피하게 집단 이주민이 되어야 한다든지 장차 경제가치가 오를 것을 기대하며 낯선 땅으로 옮겨가야하는 경우가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어느 날 한 지자체에서 유력한 기업이나 산업시설을 유치한다는 발표를 한다. 그러면 아직은 허허벌판인 개발예정지에 부동산 업자들이 개발이익의 환상을 부추기면서 모여들고 분홍빛 청사진을 내걸어 사람들을 유인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개발에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리거나 시위대가 등장한다. 바야흐로 집단과 집단, 개인과 집단의 충돌, 가치와 가치의 충돌이 시작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가족구성원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여야 하는 <집>은 재화의 수단이나 가치관 충돌의 한 요인이 된다. 기술의 진보 또한 그렇다. 예컨대 아동의 게임중독에 골머리 아파하는 학부모 모임에서는 온라인과 모바일의 게임 산업 개발에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사행성과 폭력성을 증폭시킨다는 이 사회악의 산업이 수출의 국면에서는 효자여서 새로운 게임 개발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 재화인 <땅>과 <집>이 새로운 재화로 인식되면서 갈등 구조 또한 확산되어지는 양상이다. 자본과 기술에 의해 계층과 구조가 형성되어지면서 후기 정보화 사회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지주와 농노, 자본가와 노동자 계층이 속속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것이 힘의 충돌이다. 현대 사회의 예고와 집단, 의식과 무의식의 충돌에 대한 사회적 병리현상과 그 치유책을 제시한 데이비드 호킨스는 <의식혁

명>3)에서 이를 <선형적 연쇄>4) 라고 설명하면서 그러한 패턴에서 탈피하는 것이 갈등과 충돌의 해소방안이라 하였다.

그는 사회 시스템과 구성원, 집단과 개인의 갈등구조를 해소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일차원적 선형적 연쇄를 탈피하여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하는데 현대의 구루답게 예고의 욕망을 내려놓거나 최소한 과도하게 팽창시키지 말기를 권유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논리라고 생각되어진다.

1) 땅과 집, 개인과 시스템

필자가 사는 집은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의 주택이다. 시끄러운 도심을 탈피해 자연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은 정서적으로 풍요롭고 고즈넉하지만,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많다. 커다란 벌레가 집안을 예사로이 기어다니고 가까운 마트라고해도 차를 타고 십분을 달려야한다. 스스로 도시적 편리한 삶을 버리고 이런 종류의 외딴 마을에서 살아가다보면 새롭게 체득해야하는 생활습관이 많다.

그런데 이 조용한 전원마을 주변으로는 이상하리만큼 많은 비닐하우스들이 있다. 자연의 연속성을 훼손하는 이 볼썽사나운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유독 이 지역이 심했다. 이는 그린벨트를 소유한 주민들이 그곳에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신축예정인 보금자리주택의 토지보상안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또 토지보상금의 산정 기준은 농작물의 재배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난

3) 데이비드호킨스, 『의식혁명』, 백영미 옮김, 판미동, 2011

4) “관찰가능한 세계내에서, 인과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관습적으로 추정되었다. $a \rightarrow b \rightarrow c$ 이것을 결정론적인 선형적 연쇄라고 하는데, 이는 당구공들이 연쇄적으로 상대를 때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암묵적으로 추정되는 바는, A는B를 일으키고 B는 C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데이비드호킨스, 『의식혁명』, 백영미 옮김, 판미동, p63

다. 재미있는 것은 토지주가 산출한 보상액과 유관기관에서 산출한 금액에 때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비닐하우스안의 묘목이나 농작물, 혹은 임야에 심어져있는 수목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 요구하는 쪽과 지불해야하는 쪽의 가격 산출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협상이 결렬되고 시위나 소송으로 진행되기 십상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란 대체로 오랜 기간을 소요하게 된다. 예컨대 힘과 힘의 충돌, 시스템과 개인의 충돌인 것이다. 이 동안에 전통적 의미의 <집>은 증발해 버린다.

자본주의는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우리 삶의 많은 가치들을 변질시켜왔다. 때로는 편법이나 부정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인간성의 함몰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은연중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면, 혹은 누군가에게 적발되지만 않는다면, 행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사람들의 저변에 깔린 듯하다. 비닐하우스와 재개발의 문제에서도 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일대에 어느 날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한 새로운 단지가 들어서게 되고 새로운 이름의 지하철역이 들어설 것이라는 발표가 있는 다음부터 토지주와 유관기관간의 대립과 갈등구조는 더욱 첨예해지고 장기화되어갔다. 자연의 풍광은 훼손되고 바람과 비에 찢겨져 펄럭이는 버려진 비닐하우스는 시간에 의해 난도질당한 것처럼 골조를 드러낸 채 흉하게 서있었다. 녹음진 뒷산에 버려진 비닐하우스들은 관리를 하지 않아 안에는 잡초며 들꽃이 사람 키 만큼씩이나 자라있었다.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비닐하우스는 기능을 이미 상실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원마을은 그 모습을 잃고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닌 어중간한 모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작품1> 갈현동 재건축. 영상, 3분2초, 2015



<작품1> 작품 설치 전경

비닐하우스에 푸른 네온을 설치하고 일몰부터 새벽까지 촬영했던 <작품1>의 현장은 비닐이 다 찢겨지고 뼈대만 남은 과천 갈현동의 한 그린벨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본의 민낯이다. 낮 동안은 보이지 않던 네온사인은 해가 질수록 그 밝기를 더해가고 해가 완전히 떨어진 시간

의 비닐하우스는 마치 벌레가 파먹어 놓은 썩은 동물의 뼈같이 보인다. 그 곳에서 생똥맞고 이질적으로 밝게 빛나는 네온사인은 기술의 폭력적 진보에 의해 일그러지고 파괴된 자연의 일부를 드러낸다. 물론 부정적 이미지 뿐만은 아니다. 조형적 관점에서 볼 때는 새로운 창조의 모티베이션이 되어 제3의 자연의 모습을 연출하거나 보완해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필자는 전통사회의 가치관들이 현대사회와 어떻게 마찰을 일으키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자체의 특성이나 느낌이 변화하도록 비닐하우스 안에 네온을 설치했다. 동네에 버려져있던 비닐하우스는 이미 그 전의 온실의 기능을 상실한 채로 그 본래의미가 퇴색되었지만, 그 안에 네온을 설치하고 시간의 변화를 맞이하면서 공간은 한번 더 변화하게 되었다. 비닐하우스가 버려진 과정과 배경에 관해 표현하려하면서도 그 표현을 통해 가치의 재생산을 원했다.

내가 사는 지역만이 아니라 어느 덧 모든 농촌은 도시화를 지향하면서 아름답고 풍요한 자연의 본래모습을 잃어간지 오래이다. 물론 부의 축적이나 경제발전, 문명의 발전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일반적 관행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우리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삶을 영위함에 있어 편리함과 이익추구만으로 삶의 질이 함께 상승한다 할 수 있을까. 술에 불을 붙일 때 스위치만 돌리면 되는 도시가스는 땀감으로 밥을 짓던 방식에 비하면 놀라운 혁신과 진보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불을 지피는 인간 본연의 정서가 빠져있다. 한 해 농작물의 운명을 맡기곤 하는 일기예보 또한 문명의 발전을 통해 이룩된 것이기도 하다. 사회 시스템은 발전했지만 역시 하늘을 보는 눈과 자연의 섭리를 망각시킨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의 가속적 발달이 야기시키는 새로운 유형의 갈등고리들이다.

추운계절에도 햇빛을 받아 여린 녹색작물을 성장시키기위해 고안된 비닐하우스, 한 겨울에도 우리의 식탁에 신선한 찬거리를 제공해주었던 그 비닐하우스의 채소들. 자본의 알고리즘은 그러나 그 농산물 조기 출하의 발

명품인 비닐하우스를 사회시스템에 대한 완고한 대응, 혹은 변종적 생산 수단의 하나로 전락시키고있다. 낮 동안 환한 햇빛을 머금어야될 온실은 갈기갈기 찢기우고 햇빛대신 한밤에 푸른빛을 내는 네온을 통해 필자는 일그러진 자연과 문명의 표정을 담아내고 싶었다.

한밤중 바람에 찢겨 펄럭이는 비닐하우스는 때로 기괴한 비명처럼 들려온다. 그리고 그 결의 비 맞아 축 늘어진 격렬한 구호문의 플래카드는 밤 낮없이 외치는 구호처럼 보인다. <작품1>은 한낮의 밝은 햇빛을 몰아내고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기괴한 색을 발산하는 비닐하우스를 통해 농경 사회와 후기 자본주의 그리고 정보화 사회가 뒤범벅이 되어 일그러진 한국사회의 표정을 잡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2) 전통과 혁신의 부조화

몇 해 전 DDP부터 창신동까지 걸어가면서 동대문의 화려함과 창신동의 전혀 다른 분위기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보았다. 창신동의 아기자기한 옛 정취를 떠올리게 하는 거리가 있어 동네언덕을 한참 올라갔다. 그러던 중 한 버려진 듯 한 집을 발견했는데, 한눈에 봐도 옛날의 재력있는 일가의 저택이었던 듯 싶었다. 나도 모르게 그 고택에 끌리듯 들어가 보았다. 누가 봐도 폐가였지만 그곳은 여전히 위엄이 느껴질 정도의 분위기가 있었다. 처음 보았을 때의 음산함과 스산함은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익숙해지고, 눈에 자세히 들어오기 시작했다. 급하게 버려진 듯 한 식기와 가구들은 그 집에서 떠나야했던 구성원들의 다급한 상황을 대변하는 듯 했다. 전시도 아닌데 그들은 왜 그렇게 다급하게 주거지를 옮겨야 했을까. 생각해보게 되었다.

어느 덧 대한민국사회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이유는 정서적인 이유보다는

대부분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서다. 돈이 부족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혹은 더 좋은 곳으로 갈만한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창신동의 버려진 집의 대문에는 경매딱지가 붙어있었다. 여러 소유자의 이름과 경찰서 연락처도 붙어있었다. 추측컨대 이 집의 예전 주인은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은 아닌 듯 했다. 그 고택에 흥미가 생겼다. 창신동 버려진 대저택 구성원들은 어디로 가야했고, 왜 가야했을까.



<작품2> 종로구 재건축. 가변설치. 혼합재료, 2015

집의 주인들을 떠나가게 해야했을지 모르는 여러 가치관과 한 때 가족구

성원의 보금자리였던 공간을 뒤섞어보았다. 창신동 저택의 모형을 만들고 그 집 한가운데를 네온이 뚫고 올라가게 하였다.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 네온사인의 좌대는 실제로 불안하고 위험했다. 이러한 폭력적인 연출은 필자가 생각하는 여러 가치관의 충돌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집을 파헤치고 가족 구성원을 해체시키는 하나의 매개체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네온은 그 자체로 위험한 재료이다. 깨지기 쉬우면서도 고압이 흐르고 있어 약한 충격이나 부주의에도 깨지거나, 다치기 쉽다. 설치된 후에도 고압이 흐르고 웅웅대는 소리는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관람이라는 느낌 이전에 위험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소재의 특성은 작품이 표현하고자 하는 현대사회가 중시하는 가치관들의 폭력적인 일면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시끄럽고 어지러운 도심에서 네온은 효과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유용했다. 값싸고 휘황찬란한 빛을 내뿜는 네온은 주로 유흥문화의 광고판으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네온을 생각하면 우리는 네온으로 만들어진 글귀며, 그림을 떠올리게 되고 대부분 천박한 문화를 연관 짓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을 쉽게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과 결부시키는데 네온은 유용했다.



<작품3> 종로구 재건축, 라이트박스, 160x75x15cm. 2015

침단의 동대문 DDP 프라자는 유서 깊은 종로라는 공간과 거대한 고가에서 흘러나오는 네온 발광체로 서로 간 어울리지 못했다. 필자는 이점에 주목하면서 축소된 모형에 설치한 네온을 실제 폐가에도 설치해 보았다. 창신동을 걸어 다니다보면 그 집 뿐 아니라 흡사 버려진 듯이 보이는 기와집들이 드문드문 보였는데, 네온을 들고 폐가에 설치하고 사진을 촬영했다. 네온과 세월의 무게가 내려 앉아있는 폐가가 서로에게 부조화를 일으키며 불편한 시너지를 일으키도록 했다. 폐가에 설치된 별칭게 빛나는 네온사인은 집안을 을씨년스럽고 공포스럽게 보이게 했다. 어둡해진 창신동 위쪽으로 밝게 빛나는 동대문거리의 불빛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시간과 공간의 엇갈림 속에서 집과 기술의 불편하고 불안한 공존이 시작된 것이다.

설치된 네온사인을 통해 오히려 집안 구석구석이 보이기 시작했다. 버려진 집안기자재며, 오래된 석가래들은 오히려 대낮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비춰냈다. 서로 극명하게 대비되어지기도 했지만, 네온사인은 버려진 한옥의 설치미술이 되어지기도 했다. 심지어 묘하게 어울려 보이기까지 했다.

종로는 왕조의 정신이 배어있는 곳이다. 옛 궁궐이 있을 뿐 아니라 문화유산의 집결지이고 일종의 역사 박물관이다. 그래서 이곳의 재개발은 보다 사려깊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푸른 녹지대의 불쌍사납게 펼쳐지는 비닐과 그 속에서 엽기적 발광체로 빛을 내는 자연과 문명의 부조화는 이 유서 깊은 동네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나고 있었다. 도무지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3) 사회구성원으로써 발생하는 가치관 충돌

새로운 생활반경으로의 이동은 당사자들에게는 결코 간단치 않은 일이다. 정서적 이동까지 함께 일어나기 때문이다. 학창시절 학교를 옮길 때마다 그 곳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늘 새로운 장소나 환경에 어울리지 못하고 곁돌았다.

학교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스무 살 입대 후 신병이 해야 하는 심리테스트에 지나치게 솔직하게 적었던 적이 있다. 가끔씩 이명이 들리기도 했고, 어렸을 때에는 일종의 폐소공포증이 있어 엘리베이터도 잘 타지 못한다는 것을 사실대로 적었다. 이 지나칠 만큼 솔직하게 쓴 심리테스트 후 군에서는 본인의 어깨에 노란 견장을 붙여주고 ‘관심병사’라는 표식을 붙여주었다. 실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남들과 다른 취급을 받는 것이 부끄럽고 비참했으며 비로소 지나칠 만큼 솔직하게 적은 답안지가 후회스러웠다. 내 생애 최초로 내 자아가 집단의 논리에 의

해 당한 일종의 횡포인 셈이었다. 노란 견장을 볼 때 마다 병사들이 수군 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어이없는 주홍글씨야말로 자아와 시스템 예고와 집단의 소통부재에 대한 내 최초의 학습이고 인식인 셈이었다. 제대 후 가끔 군에서의 충기사고 같은 뉴스를 접할 때는 한때 내 어깨에 붙여져 있던 노란 견장이 떠오르곤 했다. 나중에 중대장과의 몇 번의 면담을 통해 본인이 이상 없음을 간신히 설명한 후에야 그 견장을 떼어버릴 수 있었다.

사회에서 부적응상태는 일종의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행위 또한 사회 특성상 피할 수 없다. 어느 덧 시스템속의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동하고, 만나고, 헤어져야만 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구성원들은 그 변화에 맞춰 변화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구성원은 도태되고, 진화나 변화할 수 없으며,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존재로 취급받는다. 과연 그렇게만 단정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할 여러 국면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작품4> 120도 오븐에서 5분, 120x27cm, 사진, 2014



<작품4-1> 120도 오븐에서 5분, 120x27cm, 사진, 2014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은 늘 정해진 조립법이 있었다. 설명서에 적힌 대로 조립하다보면 결국 포장지에 있는 그림과 비슷하게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규범이나 규칙에 맞추지 않으면 예측 불가능한 결과물을 만들어낼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내포한다.

초, 중, 고 12년을 동일한 교과과정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수학하는 교육 방식도 다르지 않다. 그러한 과정들 밖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는 특별취급 받거나 소위 왕따를 겪게 된다. 현대사회는 정해진 틀 밖으로 튀어나오는 존재들을 이단취급하고 정상범주에서 제외시키곤 했다. 예컨대 교육시스템의 작동이 우선인 것이다. 이러한 규범이나 규칙에 있는 공산품들을 녹여내는 시도들은 이미 무의식중에 자리 잡고 있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사회가치관과의 끊임없는 충돌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에게는 피하기 어렵다. TV화면속의 <자연인>처럼 이런저런 사연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산속에 틀어박혀 모든 문명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혼자 살아간다면 혹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신기술이며 다양한 시스템과 관계 맺어야 하는 사회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 구성원간의 유대나 사회성이야말로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주요 덕목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사항이다.

십여 년 전에 방송에서 일본의 ‘히키코모리’ 문화에 관해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었다. 아직 한국에는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생소하던 시절이었는데, 방안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본의 젊은 청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다. 곧 한국에도 한국형 히키코모리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은 그 반강제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들로부터의 단절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부정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했다. 문명과의 단절, 인간관계로부터의 탈출이 결코 좋은 결과로 귀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문득 이 사회에 산재되어있는 여러 가치관들은 흑백논리처럼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연관되어 발전하고 혹은 억제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백년 왕조의 얼이 깃든 폐가와 신문명의 상징인 네온은 극명하게 오버랩되는 우리의 필모그래피이고 문명자화상이다. 이처럼 사회 문제는 한 단면으로는 설명되어지지 않으며 양립하는 듯 보이는 여러 가치관들은 때때로 서로 견인하며 멀어질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작업을 통해 인식하게 되었다.

II 특수하고 지역적인 사회 문제와 가치관의 조형적 접근들

결혼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기형적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사회가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을 가진 불명예 국가가 된지도 수년이 지났다. 출산 연령이 점점 늦어지거나 아예 출산자체를 기피하는 것도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국가는 여기에 대한 사회 시스템적 측면에서 문제와 해결책을 부단히 제시하지만 개선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러한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며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우선 고학력 젊은 세대로 갈수록 자신들의 부모세대가 했던 것처럼 혼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할 자신이 없거니와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는 듯

이 보인다. 그보다는 자아성취가 우선시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과속사회와 과다경쟁, 그리고 전쟁의 위험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거나 양육하기에 주저되어지는 것이다. 가난했지만 상대적으로 불안과 비교의식이 지금보다 훨씬 덜했던 농경사회에서는 다산이 노동력의 증대를 의미했지만, 산업사회를 지난 후기 정보화 사회에서는 더구나 고도자본주의로 진입해가는 상황에서는 새 생명의 출산과 양육에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초미의 관심사는 한반도에서 언제까지 불안한 평화가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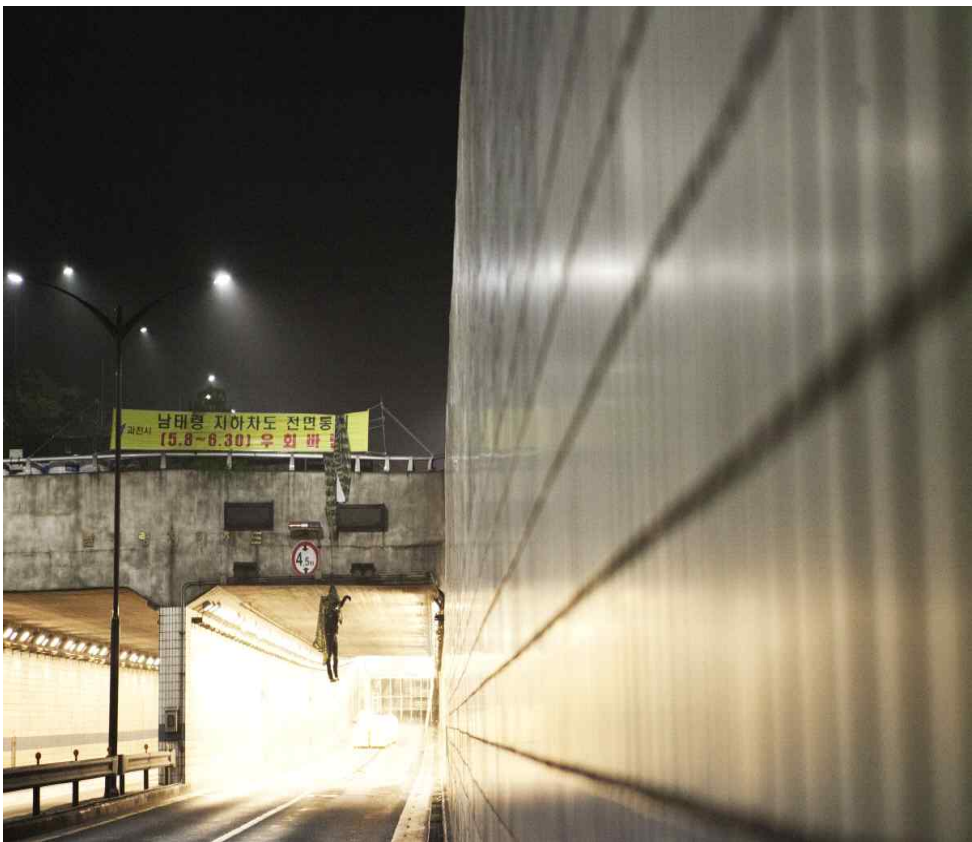
북한과 미국의 힘겨루기를 보면 실로 불안해진다. 금방이라도 전쟁을 시작할 것 같은 양측의 도발적인 발언들은 비단 한반도 뿐 아니라 세계인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외신들은 북한의 행동거지에 집중하는 한편 그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평온한 대한민국을 보며 놀란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ICBM을 발사해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모습은 외국인들에게는 신기한 일 일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담대하다기 보다는 북한도발과 전쟁위협에 대한 만성화된 불감증과 일종의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북한은 1998년부터 최근까지 20차례가 넘는 미사일 발사와 6차례의 핵실험을 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매년 터지는 핵폭탄이나 미사일은 연례행사에 가깝다.

하지만 이러한 내성은 무의식적으로 한국인들의 가치 순위나 인간관계,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혹시 모를 전쟁에 노심초사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평화로운 일상이 공존하게 되는데, 이는 심각한 인지부조화를 일으킨다.

북한의 추가 포격 위협으로 지난 22일 주민대피령이 내려진 경기 김포 시에서 밤중에 불꽃놀이 축제가 벌어져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일부 주민들은 폭죽 소리가 북한의 포격 소리인 줄 착각하고 크게 놀랐다. 5)

5) 『경향신문』, 2015.8.23

이 기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후 인천에서 일어났던 한 해프닝에 관한 기사다. 누군가는 축제의 폭죽을 터뜨리는데, 한쪽에서는 전쟁의 공포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시시각각 전쟁의 위협이 조여오는 상황에서도 TV를 켜면 <먹방>이 한창이다. 가까운 일본은 방독면을 쓰고 대피훈련을 하는데 비해 한국은 천하태평이다. 그냥 근거없는 낙관주의 속에 무방비 상태로 일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작품5> 불시착 , 35x25cm, 사진, 2014

필자는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새로운 것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소위 얼리어답터라 불리는 사람들처럼 새로운 기계를 활용하는데 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삶의 태도 또한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 조금 막히더라도 늘 지나가는 길을 걸어가고, 새로운 제품이 더 편하더라도 기존의 제품을 고집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필자에게 평화로운 공간과 시간으로 다가온다. 그러한 익숙한 공간, 학교를 갈 때면 늘 지나가는 공간에 불시착한 군인을 매달아 보았다. 이는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필자의 마음속에서 늘 불안으로 남아있는 한 요소를 확장시키는 작업으로, 그 실체를 실존적으로 표현해 본 것이다. 아마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전쟁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불안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표현시도는 그러한 무시하고 싶은 불안감에 대한 공적의식의 환기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만연한 요즘 길거리에서 군인이나 경찰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로 전쟁과는 인연이 없는 국가들에서 총을 든 군인이나 탱크를 보는 것과 한국 길거리에서 탱크를 보았을 때 드는 생각의 기반은 확실히 다르다. 퍼레이드나 훈련이라는 생각보다는 내재되어 있는 한국전쟁발발의 두려움이 앞선다. 프로이드나 융이 말한 잠재적 집단 무의식 때문이다.

군대는 가장 강력한 시스템 기관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의 개인과 집단 논리는 일반 사회의 그것과는 다르다. 지배와 복종의 이데올로기가 합법화된 현장이다. 예컨대 체벌이 지나치다고 집단 데모나 시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병역법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에 의해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고 적혀있는데 이 의무란 바로 강제력에 기반을 둔 의무이다. 이 강제적 국가법 때문에 만 18세 이상의 남성은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한다. 이는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개별성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법이지만, 동시에 합법성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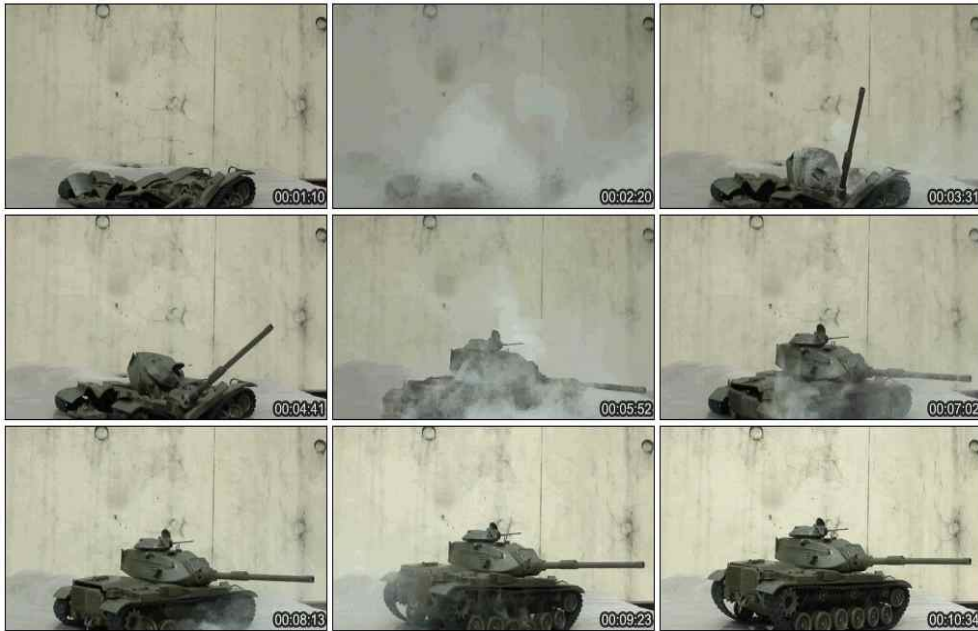
하지만 우리에게 총칼을 겨눈 상대와 긴장 속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라는 공동체를 폄하할 수만도 없다. 전쟁의 위협을 막아주고 있는 것 또 이 합법적 강제집단인 군대가 있기 때문이다. 전쟁 발발 시에 우리

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이며,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자산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첩병이자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인은 군대에서 힘들었던 기억과 국가수호의 유일무이한 자랑스러운 단체라는 가치관 사이에서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작품<불시착>이나 <탱크부풀리기>는 전쟁의 이중적이고 중의적 측면을 풍자한 것들이다. 전쟁은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그리고 이념사이의 충돌이다. 여기서 국민개개인의 생존 권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베트남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국민의 상당수는 거리에 나와 반전 시위를 벌였고 예술가들은 제 각각의 장르를 통해 전쟁에 대한 고발과 풍자를 알리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과 시민집단의 반발이나 반대는 왕왕 시스템의 논리에 묻히거나 무시되어진다. 필자는 실제 전쟁의 체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익숙한 것은 전쟁에 대한 게임들이다. 전쟁 게임이 콘텐츠산업의 일부가 되고 있음으로써 실제 전쟁에 대한 위협은 오히려 비실체가 되어버리는 기막힌 현상이 한국사회에 만연되어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에는 수많은 이념과 가치관이 교차하며 존재한다. 이를 테면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가치관은 구성원 개인의 가치관들과 서로 복잡하게 엉켜있다. 80년대 이후 민주화나, 세계화,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사회 변동을 겪은후 대한민국 개개인의 가치관은 전통적가치관으로부터 다양하게 굴절, 변화하기 시작했다. 유교적 가치관이 붕괴된 자리에서 자본주의는 새로이 대한민국사회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잡았고, 도덕이나 인격, 명예 등의 가치들은 퇴색되고 변질된 반면 경제위주가치관은 급상승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미 대한민국사회에 뿌리내린 다양한 부도덕적 가치관을 보고 배우며 자란 세대이다. 가치관의 갈등과 혼란은 따라서 불가피한 일이었다.



<작품6> 탱크 부풀리기, 11분 13초, 영상,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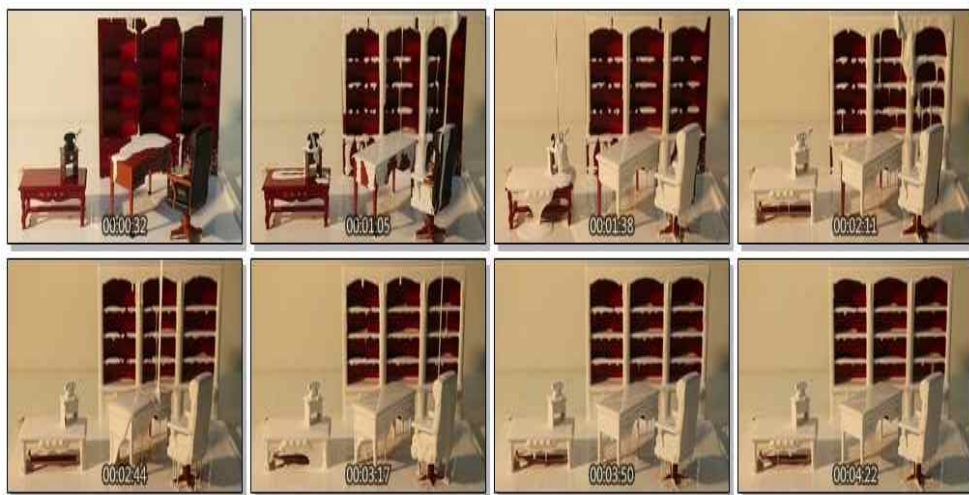
필자는 군 시절을 정비과 옆에서 근무했다.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가는 탱크나 군 차량, 병기들은 그 안에 몰래 들어가 낮잠을 잘 만큼 구조나 형태가 익숙했다. 탱크는 무지막지하게 컸고 또 단단했다. 탱크가 움직이는 모습은 늘 장관이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게 신기했던 어린시절 처럼, 육중한 쇳덩어리가 굴러가는 모습은 익숙해지지 않았다.

생소한 것들이 익숙해 지는 과정을 꺾다보면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러한 고정관념은 사회가치관과도 연결되어진다. 고정된 관념이나 가치관은 유연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본인의 잣대로 사회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더 유연히 만들어 보고자 오브제를 녹이고 또 부풀려 보았다. 필자의 작업은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탈피 혹은 변종 만들기다. 이러한 연속적인 시도들 속에서 관객으로 하여금 고정관념의 탈피 혹은 이분법적인 사고의 탈피를 바라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핵실험 소식이 들려올 때면 한쪽에서는 무

한 인내하기보다는 전쟁이라도 터져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한다. 특히 10대 20대등에서 이런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올때는 그 의식속에 어느정도 오타쿠적 전쟁게임에 대한 의식이나 전쟁에 대한 낭만적 상상력이 개입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게임은 거의 늘 키보드를 켜 나의 승리로 끝난다. 스틸이 있고 파괴력이 클수록 승리의 쾌감 또한 크다. 실제적 전쟁의 참혹성은 비현실적으로 뒤로 물러나고 마치 오븐에서 식재료를 데우면 맛있는 음식이 되어나오듯한 상상력이 개입되고 있는 것이다. 전쟁과 게임의 논리는 이런 패러디 속에서라야 가능해진다.

실제 전쟁을 겪은 세대가 진저리를 치는 전쟁의 참혹상은 게임적 리얼리즘의 가상 현실 속에서는 일종의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한국의 동해안에 물려와있는 미국의 전함들을 뉴스로 접하고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실제적 위협을 앞에두고도 TV에서는 코메디와 먹방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IT강국 한국만 가지고 있는 코메디 같은 현실이다.



<작품7> 서재 지우기, 영상, 4분50초, 2017

어느 날 밤 TV를 보는데 약 십 만권의 장서를 지녔다는 학자가 나왔

다. 그 집은 그야말로 책의 산터미였고 책의 피라미드와 같았다. 진행자가 이 많은 책을 언제다 모았느냐고 묻자, 사실은 책 때문에 다른 일을 거의 못하고 심지어 집을 오래 비우지도 못해 골치 아프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얼핏 엄청난 장서를 지닌 것에 대한 자랑 같기도 했지만 그분의 대답이 솔직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 많은 책을 다 읽은 것일까. 그리고 책은 계속 쌓여갈 텐데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왜 이 많은 책들을 끌어모은 것일까. 카메라가 천정 꼭대기까지 닿은 책장들을 비추고 지나갈 때마다 숨이 막히는 심정이 되었다. 그러면서 문득 책들이 고액권 화폐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집을 사 모으거나 주거를 재화의 획득수단으로 여겨 끊임없이 이동하는 욕망구조와 저것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식의 욕망이나 욕망의 발생구조는 비슷할 것이다. 지식의 포화 상태와 과시 욕구는 동시에 불필요한 공간 확장을 필요로 한다. 집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책이 되어, 사람은 왜소하고 지식의 상징인 책은 계속 팽창하는 것이다. 비닐과 폐가에 설치하는 네온처럼 이번에는 책장에서 책들을 비워내어 <사람>의 존재감보다 훨씬 커버린 <책장>의 존재감을 지워나가 보았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얀 페인트는 대저택을 뚫고 올라오던 네온과 그 맥락을 함께 한다. 기존가치관의 변형을 만들어내는 매개체로서 사용되어지며,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잣대의 이질스러운 참견으로 다가온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내재된 가치나 습관이 변하기 힘들다는 뜻인데. 이러한 변하지 않은 습관이나 가치 또한 자아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이다. 누구에게나 적당한 타락도, 도덕도 혼재되어있다.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못했던 채식주의자였던 히틀러가 무려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학살한 것이랄지, 강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연쇄살인마처럼 인간에게는 누구나 선악의 이중적인 면이 존재한다. 그 복잡한 인간을 구성하는 가치관들은 전 세계 인류만큼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개개인의 가치관이 모여 사회 가치관을 형성하고, 형성된 사회 가치관은 다시금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전 일일드라마에서 “암세포도 내 세포이니, 사랑해 줘야해” 라는 대사가 있었다. 현대사회에서 개개인이 겪고 있는 다양한 증후군이나, 공포증, 정신질환들 또한 본인을 구성하고 있는 몇 가지 가치관이나 현상일 뿐이다. 진정한 시스템적 통합은 그 개별자적 다양한 가치관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조화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누군가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식은땀을 흘리고 배속이 뒤틀릴 것이다. 하지만 사회관계에 능숙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다중의 사람이 모인 곳에 가야 신명이 나는 것이다. 이러한 개별자적인 층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공존의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마치며

대대손손 집 앞의 논밭을 갈아 먹고살며 대가족 단위를 영위했던 전통적 농경사회의 가치관은 붕괴된 지 오래다. 한때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한국 농촌사회의 그러한 혈연공동체야말로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한 방안이라고까지 예찬한 바 있지만 이제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에 있어서 <집>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고착된 것이었다. 한곳에 수십 년을 살면서 삶의 터전을 이루었고 흠어졌던 가족들도 결국 그 집으로 다시 회귀하곤 하였다. 그러나 산업사회 이후 후기자본주의와 정보화 사회를 지나면서 집의 위치는 변하였다. 재산상의 이익이나 도시의 계획에 의해 수시로 옮겨 다니게 된 것이다. 예컨대 교차로에선 노마드인 셈이다.

<집>은 어느새 끊임없이 이동하고 계속하여 바꾸어 가야하는 그 무엇이 되어버렸다. 더구나 그 집에 의해 재산상의 척도가 지어지면서 새로운 계층사회가 형성되어졌다. 그러면서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개인과 집단의 갈등구조가 높아진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삶의 풍경을 사회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여 조형적으로 극복해 보려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 예컨대 경제의 급격한 팽창과 더불어 야기된 소득불균형과 IT강국의 이면에 드리운 정서적 문제들, 상시적 전쟁의 위협과 군대공동체, 그것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조형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 싶었다. 갈등구조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고보다는 조형적 주제로 인식하려 한 것이다.

개인과 사회 시스템의 갈등구조에 대해 오늘도 다양한 해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해법들 중에 거의 항구적인 것들은 없다. 이익집단과 또 다른 이익집단의 부딪침, 가치와 또 다른 가치의 충돌만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숨 가쁜 기술 진보경쟁은 과도한 긴장과 피로를 낳게 된다. 이 국면에서 필자는 삶과 기술 시스템

6) Claude Lévi-Strauss(클로드 레비스트로스), 1908~2009, 인류학자

과 개인의 불편한 동거를 조형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접근해 보려 한 것이다. 모든 갈등구조는 그 안에 논리로 풀 수 없는 국면들이 있다. 그 부분을 주목하여 거대 담론 아닌 사적 논리로 풀어가보고자 한 것이다.

참고 문헌

에리히프롬, 『소유냐 존재냐』, 차경아 옮김, 까치글방, 1996

하비콕스, 『세속도시』, 이상률 옮김, 2010

데이비드호킨스, 『의식혁명』, 백영미 옮김, 판미동, 2011

Abstract

Conflicts between different classes and generations are sharply increasing along with advances of capital. More notably, the expansion of social networks exacerbates both value conflicts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and alienation problems, which have recently become social issues. For instance, ethics or a sense of community, which were once regarded as virtues in traditional society, are now recognized as values that should be abandoned. There are both bright and dark sides behind the success of Korea, one of the most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ies in the world. In this regard, conflicts between groups and individuals can be considered to be conflicts between different value systems. Korea is already a country operated by a highly sophisticated capitalistic system; at the same time, this system further intensifies a conflict structure between different groups or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due to different interests and values. For example, many issues in society, including urban regeneration or nuclear problems, are caused by conflicts between different systems or values.

This paper begins as an attempt to examine and explore links between social phenomena and conflicts, sometimes by analogy or parody, from the perspective of plasticarts. By directly representing problematic phenomena that have arisen from values or social systems or including, melting, inflating, or freely manipulating them in objects, this study attempts to observe various phenomena occurring inside of social notions, which are entrenched unconsciously (similar to stereotypes), and thus change perceptions.

Linking intricately entangled social problems to individual value problems makes this conflict structure clearer. Persistent social illnesses

that Korea's social system is grappling with, including new social class problems caused mainly by regions, generations, or capital, can be interpreted to some extent by examining those who fail to adapt to the social system and are alienated in today's world.

Even though approaches or attempts to keep these social problems or illnesses in the public consciousness and collect many different opinions to resolve them are complex and lengthy, they are morally required. This paper intends to find an answer to a particular problem, or change perceptions, by approaching individuals whose stories are becoming social issues from a plastic arts' point of view with multi-layered values.

It is not easy, however, to look at all conflicts that arise from various values or ideologies, which are characteristic of today's world, from the perspective of plastic arts. This is because the values constituting today's world are too complex and diverse; however, it is equally important to shape this confusion and chaos in plastic arts.

It is often the case that problems occurring among members of society cannot be understood logically because of their complexity. Just like the game "whack-a-mole," more often than not, a new problem arises as soon as you have taken care of another one. Fortunately, an attempt to observe these phenomena from the viewpoint of plastic arts and use them as a research basis can act as a foundation for a new and different social imagination, even though the art may be general and metaphorical in nature.

Of course, there are many restraints and limitations when using these social conflicts as topics of a piece of artwork. This is expected to represent problems in reality as images, or it may expand expressions by visually distorting or transforming them.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express conflict structures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between different classes, or between different ideologies in plastic arts from the perspective of an observer, instead of seeking a logical analysis or attempting to solve them.

Keywords: social system, members of society, individuals, groups, ideology, conflict, plastic arts

Student number: 2014-20760